



통합 2019년 6호

소중한 꿈을 키워 나가는 희망꿈터 !!

남자 청소년 쉼터

대화하고 싶을때..
힘이 들때..손 잡아줄께~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 (남자)

성남시종장기청소년쉼터 (남자)



여성가족부 · 복권위원회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성남시



안나의 집
ANNAHOUSE

인사말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저물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 중장기쉼터는 아이들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이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금 느리고 부족한 친구가 있다면 기다려 줄 수 있는 마음, 상대의 생각과 행동이 나와 다르더라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추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지만 장기간 함께 생활하는 중장기청소년쉼터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장기간 쉼터생활을 한 아이들의 말과 행동에서 실무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면 깜짝 놀라곤 합니다. 장기간 쉼터생활을 한 청소년이 마치 실무자가 이야기하듯 쉼터 동생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고 부듯하면서도 아이들 앞에서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올 해는 퇴소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성남시이로재단과 지역사회 위례동성당의 지원을 받아 '도담(도시락을 담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였고, 분당우리교회 공모사업을 통해 퇴소생들의 월세 및 취업준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쉼터'가 누군가에게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제 2의 든든한 원가정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방황했던 아이들은 한 순간에 빠르게 변화하기보다는 쉼터 선생님들이나 또는 사회에서 교류하는 어른들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한 걸음씩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쉼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후원자님과 봉사자님들, 쉼터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시는 운영위원님들, 쉼터에 놀러와 입소 청소년들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는 퇴소 청소년들, 그리고 밤낮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쉼터 청소년들이 아픈 상처를 딛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고, 쉼터가 따뜻한 동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지역사회 연계기관 및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시설장 **장가람**

성남시 단기청소년 쉼터(남자)



★ 연혁

2006	07 11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위탁사업 실시 시설 개보수 확장
2007	08 10	"내일을 향해 걷는다" 국토순례 실시 거리상담 사업실시
2008	07 11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재위탁 "나를 찾아 희망을 찾아"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2009	10	"푸름이들의 희망찾기" 지리산둘레길 걷기 실시
2010	03 10 11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운영위원회 발족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 금연학교 실시 "미래를 향해 열린 문" 역사이론체험교실 실시
2011	05 06 06	한국 GM 한마음 재단 스파크 차량기증 "해상왕 장보고의 꿈을 쫓아서" 중국탐방 실시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재위탁
2012	03 08	사랑의 열매 & 두산기업 공동지원 "공부방 운영사업" 선정 "보고 듣고 즐기는 우리의 전통문화" 한국전통문화체험학교 실시
2013	05	"푸름이들의 희망교실" 검정고시 대비 공부방 운영
2014	11	시설 개보수
2015	07	이동형 아웃리치 "아지트" 활동 실시
2016	06 07 08 11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재위탁 이동형 아웃리치 "아지트" 운영비 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평가(최우수기관선정) '열려라 나눔아! 피어라 희망아!' 한미약품 지정기탁사업 선정
2018	06 09	청소년 창작 뮤지컬 'COME BACK HOME' 공연 3회(분당소극장) 캄보디아 해외봉사활동(8박 10일)
2018	04 06 08 11	시설 이전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재위탁 청소년활동지원사업 선정 "울·사·단" 연세와이엘의원 협약
2019	02 03 10	RE:BORN 「드림」사업 "나의 길 늘솔길" 월드비전 위기가동 공모사업 "Boys! 나를 찾아 Voice!"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평가 「장관상」 수상

★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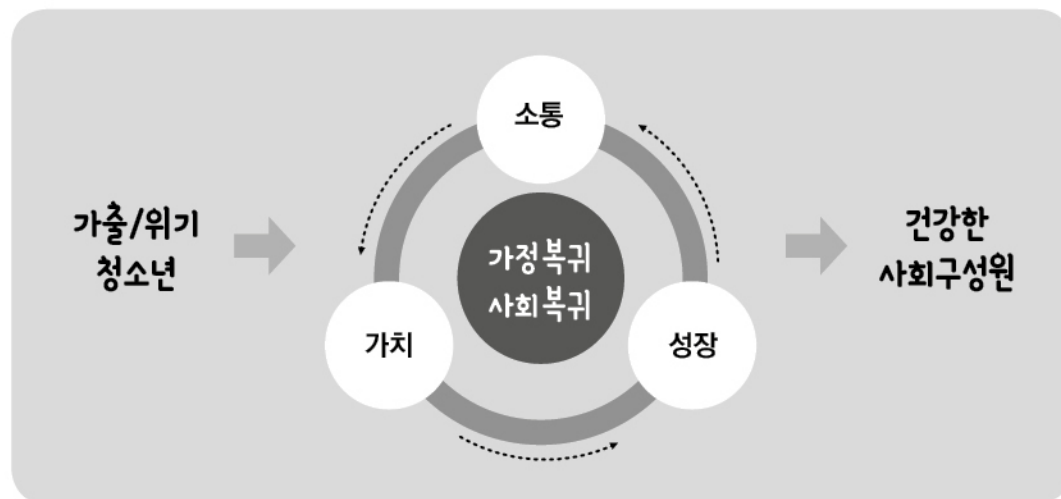
★ 직원현황

이름	직위	업무
박성진	시설장	대외협력 및 총괄
최지엽	팀장	프로그램개발, 실적 총괄
박준영	주임	사례 총괄 및 실적 관리
이민아	청소년상담사	입/퇴소 및 사례관리, 자립지원
서기범	사회복지사	입/퇴소 및 사례관리, 시설안전관리
안요한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청소년활동지원
서경원	사회복지사	야간생활지도, 사례관리, 안전 및 생활교육
황동군	사회복지사	야간생활지도, 사회적응프로그램, 사례관리
배인서	행정원	회계 및 행정업무
정혜자	취사원	입소생 주간 식사관리
홍성철	아웃리치팀 팀장	이동형 아웃리치 총괄
문보윤	사회복지사	이동형 아웃리치
황지은	청소년지도사	이동형 아웃리치
이보화	사회복지사	이동형 아웃리치
황규진	청소년상담사	이동형 아웃리치

★ MISSION & VISION

MISSION | 청소년, 그 푸른 잠재력의 출발선

VISION | 배움과 소통을 통해 가정 및 사회복귀로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청소년 쉼터



소통 비행예방형

- 부모교육 및 상담을 통한 일차적 예방 및 가정으로의 복귀.
- 학교 아웃리치(예방프로그램)를 통한 이차적 예방.

가치 학업형

- 학업흥미 유지 및 맞춤형 학습을 위한 개별 청소년 단계별 학업지원,
- 쉼터 자체 내 대안학교 운영을 통한 학위인정.

성장 진로탐색형

- 학업흥미 유지 및 맞춤형 학습을 위한 개별 청소년 단계별 학업지원,
- 쉼터 자체 내 대안학교 운영을 통한 학위인정.

★ 비행 예방 활동

청소년 문제 예방 및 올바른 성장 도모

- 찾아가는 거리상담을 통한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교육
- 상담 및 정서지원에 따른 위기에 대한 신속한 접근
- 기초생활지원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인식 제고
- 집중 캠페인을 통한 비행 예방 활동(관내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연합 활동)

찾아가는 학교 아웃리치 실시

- 지역 내 학교를 방문하여 가출 예방 관련 교육 실시
- 청소년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접근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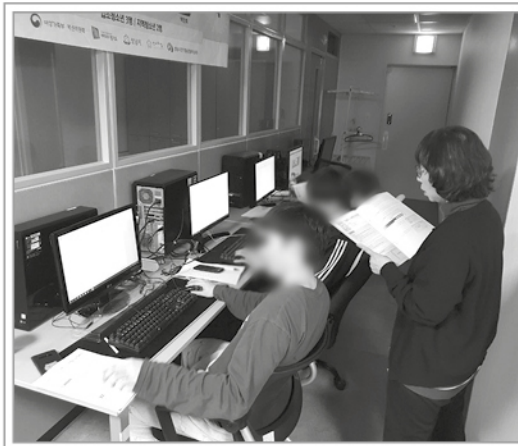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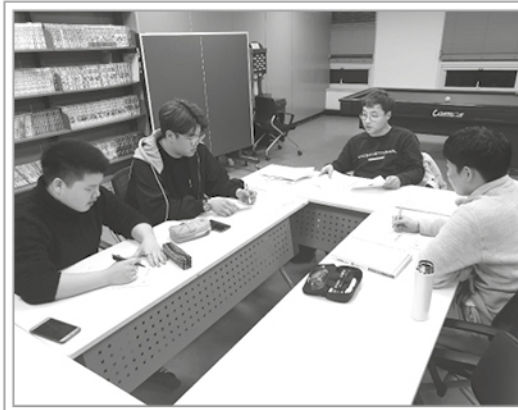
★ 학업 중단 예방 활동

검정고시 공부방 사업 실시

- 청소년들의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학업 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초 학습지도
〈개인 또는 집단 학습〉

외부 여건으로부터의 보호를 통한 학업 중단 예방

- 학업 유지 청소년들이 외부 여건에 부딪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 체계 마련
- 학업유지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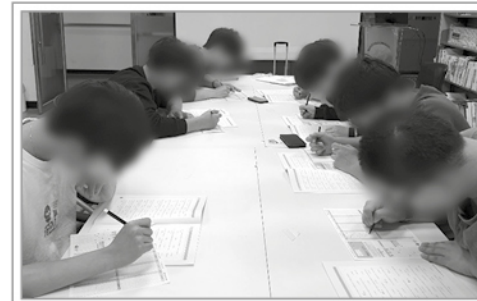
★ 진로 지원 활동

맞춤형 적성 발견 및 자립지원

- 진로 개발을 통한 및 정서적 안정 도모
- 진로 교육을 통해 주도적 진로 개발 및 탐색
- 자립기술 습득과 사회진입 도약
- 자립 동기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체험 특화

- 다양한 직업군 전문가들의 만남을 통한 진로 설정 가능



★ 2019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RE:BORN 드림 사업 “나의 길 늘술길”」

청소년들의 여가 문화 활동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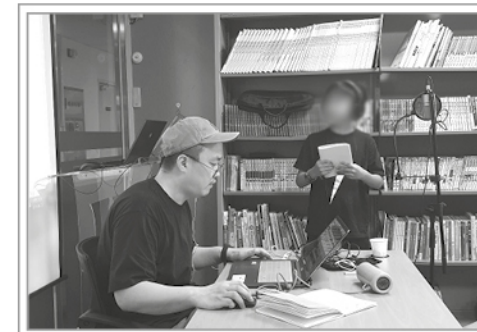
- 활동적인 여가문화 조성을 통한 건강한 신체활동 도모 <자전거 여행 “재미나눔 희망꿈터”>
-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 및 체력 증진 <여가문화 “푸른일상”>



「월드비전 위기아동 지원사업 “Boys! 나를 찾아 Voice!”」

위기청소년의 안정적 정서함양과 자신감 증진을 위한 문화 창작

- 청소년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정서적인 안정과 내적 성장 유도 <Boys! 시작하다>
- 작사를 통해 음악(Rap)으로 표현함으로써 내적 불안감과 스트레스 해소 <Boys! 라임을 타다>
- 창작 작품집(시&Rap) 출판을 통해 내적 성장을 도모하고 창작물에 대한 성취감 고취 <Boys! 글을 품다>



♡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입.퇴소 청소년들을 위해
한 해 동안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개인후원

물적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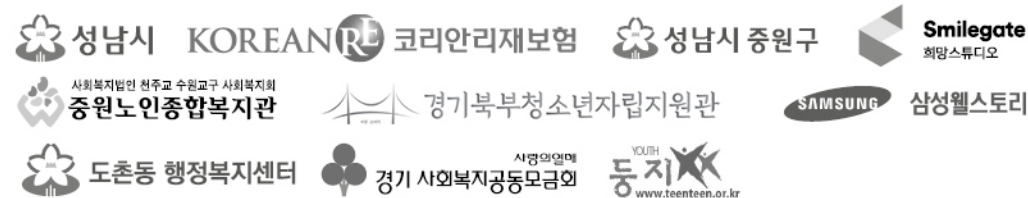
박혜순님, 김질임님, 조영선님, 정혜윤님, 박기자님, 김초롱님, 이은영님, 임희수님, 고경아님

인적후원

김현호님, 김영주님, 조웅희님, 정해빈님, 이주연님, 이수형님, 이은정님, 김미자님, 김연순님,
최도희님, 손그레이스님, 최진님, 이두희님, 박성란님, 홍성주님, 채진희님, 박지현님, 이상옥님,
이근휘님, 백승환님, 한수정님, 이종수님, 이해선님, 봉채은님, 김아람님

★ 기업후원

물적후원



(주)트라이포드, 대한푸드, AWCTSA, 중원노인복지관선배시민디딤돌, 태흥복지재단, 좋은축산
마을, 따뜻한세상만들기, 예산군미향물류센터, 위례원마을노인복지센터, 죽전동성당, 꿈꾸는봉사단,
사랑의교회, 순복음새생명교회, 중부제일교회, 삼성전기,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인적후원



따뜻한세상만들기, 성남동성당, 위례동성당, 분당경륜경정, 성남도시개발공사

★ 후원 물품 현황





성남시 중장기청소년 쉼터(남자)



성남시중장기청소년센터(남자)

• 중장기 센터는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있어도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에게 안정된 환경 안에서 학업과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개별, 집단상담, 부족한 학습지원, 문화활동, 진로지도,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성이 함양된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설립 및 운영주체

설 립 2011년 10월 1일 성남시 중장기남자청소년센터 위탁사업 실시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 연혁

2011 10	성남시중장기남자청소년센터 위탁사업 실시	2017 06	우리은행 판교지점 후원협약 체결
2012 02	센터 개소식	10	성남시 상담복지센터 업무협약 체결
2012 11	공부방 개보수, 확장	09	사단법인 자원봉사 "애원" 벽화공모사업 선정
2012 11	운영위원회 발족	2018 03	성남이로운재단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공모사업 선정
2013 04	사회적기업 자리(주) 교육 및 현장실습 협약 체결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협약 체결
2013 10	성남시중장기남자청소년센터 재 위탁(3년)	04	웅문사 템플스테이 협약 체결
2014 01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 협약 체결	06	시설 이전 개소식
2015 01	길벗한의원, 남서울치과 진료지원 협약 체결	12	위기청소년 지원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단체)
03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2019 01	월드비전 '마음의 소리', 성남이로운재단 '도담', 분당우리교회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공모사업 시작
12	센터 내부개보수	05	가천대 통합발달심리센터 업무 협약식
2016 06	기관명 변경 "성남시중장기청소년센터(남자)"	07	2019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센터 종합평가 (2016~2018) 최우수기관 선정
08	소아청소년상담센터 공감 상담지원 협약 체결		성남시중장기청소년센터(남자) 재 위탁 (2년)
	연세푸른 정신과의원 진료지원 협약 체결	12	시설장 변경(박주형 시설장→장가람 시설장)
09	여성가족부 청소년센터 평가(최우수기관 선정)		
	성남시중장기청소년센터(남자) 재 위탁(3년)		
12	분당우리교회 차량지원사업 선정		

• 직원현황

이름	직위	업무
장가람	시설장	사업총괄, 대외협력, 후원자 관리
정재용	주임	운영위원회, 관공서아웃리치, 퇴소생 사후관리
오정빈	보호·상담원	운영실적, 자원봉사자 관리, 시설관리, 수련활동
현미숙	행정원	행정 및 후원관리
오승윤	보호·상담원	야간 생활지도, 직업체험, 교류활동
방철우	보호·상담원	야간 생활지도, 인권교육, 문화활동
안순희	취사원	주간식단 및 식사관리

• 2019년 청소년센터 운영현황

★사례수 (단위: 명)

구분	입소생	사용자	합계
진행 사례수(실인원)	13	228	241
신규등록 사례수	5	228	233
연인원 사례수	3,324	355	3,679

★입소연령 (단위: 명)

구분	남자				합계
	13세 이하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입소자	0	2	4	7	13
이용자	0	0	33	195	228
합계	0	2	37	202	241

★보호기간별 입소청소년 현황 (단위: 명)

구분	보호기간					소계
	15일미만	16~30일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입소자	1	0	0	1	11	13
이용자	227	0	1	0	0	228

★사후관리 (단위: 명)

구분	개인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심리검사	서신상담	총계
합계	103	124	23	0	1	251

★퇴소현황 (단위: 명)

구분	퇴소사유								합계
	가정 및 학교복귀	아동시설 의뢰	기타시설 의뢰	보호기간 만료	대안학교 입학	취업 알선	합의 퇴소	자립육구에 의한 합의퇴소	
합계	0	0	0	0	0	0	0	0	5

★상담지원현황

구분	처리유형				개입방법						합계
	단독	협의	위탁	미분류	개인 상담	전화 상담	사이버 상담	심리 검사	서신 상담	지원 서비스	
본인(청소년)	3,573	0	0	0	1,216	173	40	0	53	2,091	3,573
학부모	59	0	0	0	17	41	0	0	1	0	59
부모외 가족	11	0	0	0	3	8	0	0	0	0	11
지도자	141	0	0	0	50	86	4	0	0	1	141
일반인	56	0	0	0	15	38	2	0	1	0	56
기타	4	0	0	0	0	2	2	0	0	0	4
합계	3,844	0	0	0	1,301	348	48	0	55	2,092	3,844

• 심터 내, 외부 모습



심터전경



심터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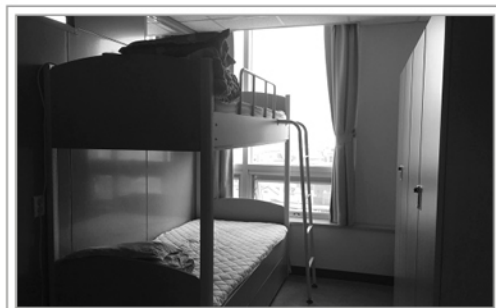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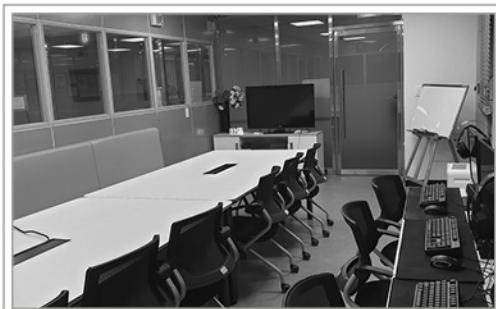
상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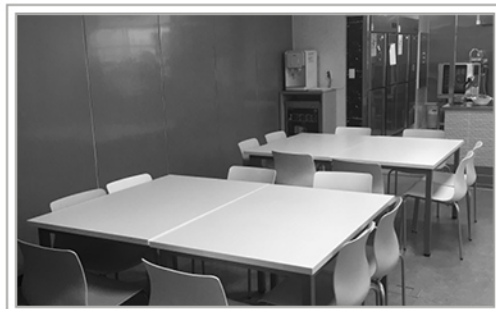
거실



숙소(2인 1실)



프로그램실



식당

• 학업 및 자립지원



학습지도(영어)



학습지도(수학)



알쓸신잡(4대보험 교육)



알쓸신잡(자립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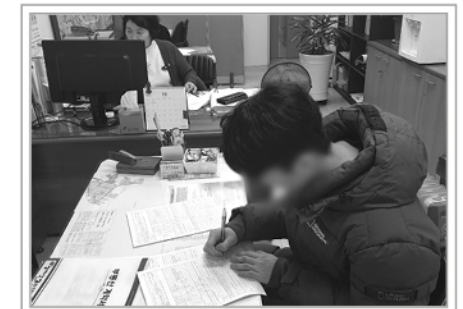
자립지원(장보기)



자립지원(요리만들기)



취업처 방문



자립지원(부동산 계약)

문화·교류활동



문화활동(연극관람)



문화활동(창덕궁)



문화활동(세계음식문화체험/국제봉사단)



문화활동(밤도깨비시장)



교류활동(볼링)



교류활동(클라이밍)



교류활동(탁구)



교류활동(포켓볼)

수련활동



춘계소풍(응문사 템플스테이 지원/양평)



하계캠프(양양, 속초)



추계소풍(복지넷지원/에버랜드)



동계캠프(양지파인리조트)

• 쉼터동정



직원 리프레쉬



여성가족부 “최우수 청소년쉼터” 표창



여성가족부 “우수 청소년 장관상”



한국청소년쉼터 협의회 UCC부문 “이사장상”



장학금 연계



가천대 협약식



자원봉사자 간담회(연2회)



통합 운영위원회(연4회)

쉼터 청소년들의 자립정착에 디딤돌이 되어주고 싶어요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생활시설입니다.

지난 2011년 개소해 현재 10명의 청소년이 생활하는 성남시중장기남자청소년쉼터(이하 쉼터).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있어도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안정된 환경 안에서 학업과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개별·집단상담, 부족한 학습지원, 의료지원, 문화활동, 진로지도 등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하는 것에 주력합니다. 안정된 환경에서 장기간 지내는 특성상 개인별 두드러진 성과를 내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쉼터 퇴소(기한 만료로 독립) 이후가 막막한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최근 쉼터에서는 퇴소 청소년들의 사후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퇴소후의 어려움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 자립 정착을 위한 지원 절실 ”

가장 안타까운 점은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점입니다.

쉼터 퇴소생들의 95% 이상은 가정에서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혼자 힘으로 자립을 해야 하지만 쉼터에서의 생활기간 동안 정서적·경제적 자립을 준비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지요. 어렵게 사회복귀를 한 청소년들이 사회적응에 실패하여 재입소를 하거나 타 쉼터 입소를 하는 과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쉼터에서는 퇴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쉼터 예산 및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한으로 퇴소 후 청소년들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정서지원 외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쉼터에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의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에 힘을 더하고, 복지 사각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청소년쉼터 입·퇴소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에 쉼터에서는 퇴소생의 사후관리를 위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8년부터 퇴소생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

퇴소생 사후관리- 지역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

공모사업을 통해 그들을 지원 할 수 있는 금전적 자원을 마련하고, 지원 연계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지역 안에서 쉼터 입·퇴소생을 돕는 네트워크를 마련했습니다.

2019년 분당우리교회 자립공모사업“**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는 퇴소생 월세 및 취업지원으로 자립능력 향상을 목표로 두고, 성남이로운 재단의 퇴소생 반찬지원 사업 “**도담(도시락을 담다): 건강하게 자라라**”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위례성대레사성당과 죽전효주아네스 성당의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2주에 한 번씩 퇴소생들에게 정성 가득한 집 밥을 담아 도시락을 전달합니다, 퇴소생들의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실질적 욕구를 지원하게 되면서 퇴소생들의 자립지원에 힘을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서적 자립준비

”

입소생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월드비전 위기아동 공모사업”인 “마음의 소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글을 융합한 랩인문학을 통해 마음의 소리를 글로 표현해보고, 악기를 만지고, 음악으로 마음속의 상흔을 직면하는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최근, 퇴소생들이 전해오는 봄소식에는 또 다른 향기가 있습니다.

공군제대 후 군무원에 응시해서 공무원증을 사진으로 보내준 최**, 육군 이등병으로 입대해 하사를 달고 휴가를 나와 입소생들과 단출한 휴가를 보내고 간 김**하사, 적금과 청약에 가입하며 자립준비에 열심인 직장인, 아직 하고 싶은 일을 찾지는 못했지만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으며 돌봄 중인 입소생 등 반가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번에 검정고시에 합격했어요”, “우리 애가 이번에 취업했어요”하며 입소생과 퇴소생을 가리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라 부르는 쉼터의 선생님들에게 청소년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랑이 느껴져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

어른이 되면 저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요.

”

쉼터 청소년들의 공통된 소망입니다.

복지, 특히 청소년에 대한 복지는 우리사회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에 투자한다면, 나아가 미래의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이 됩니다.

이 청소년들이 성장해 다시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게 되고, 그 아이들이 자라 다시 후대를 지원하는 사랑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여유 있게 주어지길, 퇴소생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지원 기회가 생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글. 블로그 기자단 11기 이훈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능력향상과 따뜻한 동지 마련을 위한 자립강화 프로그램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공모사업 분당우리교회 리본드림 사업

사업기간 2019 1. 1. ~ 6. 30. (6개월)

참여인원 76명(실인원: 10명)

활동내용 - 구직활동지원: 이력서작성, 면접예절교육, 구직활동 및 일자리 매칭
 - 취업지원 : 이·미용지원(헤어컷 및 헤어 스타일링), 의류지원, 동행면접, 사례관리
 - 월세지원 고시원 및 보증금 지원



취업지원(증명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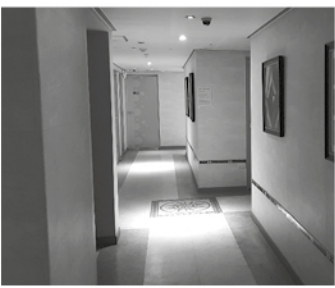
취업지원(의류지원)



취업지원(성남시청 연계)



사례관리



월세지원(고시원)



월세지원(월세방)

청소년쉼터 퇴소생들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도담(도시락을 담다) 프로젝트”

공모사업 성남이로운재단 이로운 배분사업

사업기간 2019. 2. 1. ~ 6. 30. (5개월)

참여인원 50명(실인원: 6명)

활동내용 오리엔테이션, 중장기쉼터“도담” 단톡방 개설 및 희망메뉴 접수
 - 메뉴: 김치찌개, 제육, 버섯볶음, 진미채, 어묵볶음, 장조림, 계란말이, 두부조림, 멸치볶음, 깻잎, 닭갈비, 부대찌개, 소세지야채볶음, 감자볶음, 미역국, 콩치김치찌, 감자채, 콩나물국, 김치볶음, 감자조림, 소고기무국, 호박전, 갈비찜 등
 - 기타식품: 라면, 오뚜기밥, 김, 떡갈비, 오징어젓갈, 씨리얼, 사골국, 죽, 오렌지, 두유, 우유, 바나나, 요플레, 김치, 포도, 카스타드, 맥스봉, 제티 등



오리엔테이션



도시락



위례동성당 반찬지원



죽전동성당 반찬지원



도시락 전달 및 사례관리



도시락 전달 및 사례관리

청소년쉼터 입·퇴소생들의 정서적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마음의 소리”

공모사업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위기아동 “가정밖 청소년” 공모사업

사업기간 2019. 1. 20. ~ 12. 20. (11개월)

참여인원 133명(실인원: 8명)

- 활동내용**
- 오리엔테이션
 - 개인별 악기 레슨: 건반, 드럼, 기타, 베이스, 랩
 - 밴드 음악에 맞는 작사 및 연습
 - 랩 강의“My Story”, 합주연습“Swag Harmony”, 단합캠프“마음모으기”
 - 앨범제작“The sound of mind”



오리엔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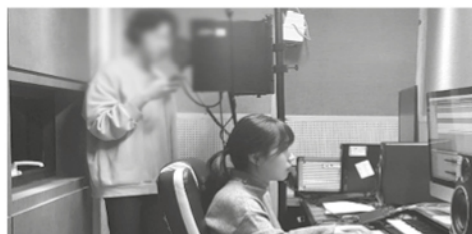
랩 인문학



콘서트관람



합주연습



녹음



프로필사진

아래 글은 월드비전 “마음의 소리”에 참여한 입소생들이 자신의 언어로 작사와 작곡을 마친 랩 가사이다.

Date	No.
“그땐 말할 수 있을까?”	I believe it
- 이**	- 강**
매일 비가 내렸던 물웅덩이 사이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비쳐지는 슬픈 내가	이곳에서 빠져나가고 싶었던
	내 나이 25살 누군가 내 발목에
중심을 잡고 있네 우리라는 말조차	족쇄를 채우고
사라져가더라도	
달력 밑 낮익게 쌓여가던 하루가	나는 더 점점 느리게 걷고 있을 때
기대하지 말라던 너를 비춰주며	이 모습을 보던 어른들은 나 때는
	너보다 더 고통을 느꼈거든 이라는
매일 조금 더 익숙해진 날	뭇 같은 말을 하며 히히덕거리며
서툰 날에 비춰진 내가 오늘 좀 더 웃어준다면	
아무도 지켜보지 않아 주는 게 익숙하지	부비트랩에 걸린 사슴 새끼 마냥
않게 된다면	허우적거리며 발버둥을 쳐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 없었고
그땐 말할 수 있을까	스스로 내 발목을 잘라 버렸네
내가 이렇게 서있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 맞아 누군가를 믿는 게
그땐 말할 수 있을까	어이없게 그 믿음은 나를 배신하고
내가 이렇게 서있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 믿음 또한 나를 추악하게 만들고
	난 아무도 믿지 못하지
	오직 내 자신만 믿지

“감사합니다.” 1년간 감사한 했던 일 모음

- #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 중장기를 위해서 항상 신경 써주시는 신부님이나 국장님을 비롯한 안나의 집 분들에게 감사하고 지금은 안 계시는 박주형 소장님과 다른 선생님들과 지금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입소생들에게 신경을 써주시고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제 일정에 맞춰주시고 쉼터 일정에 제 아르바이트 일정을 조정하고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 다양한 문화활동과 교류활동을 통해 추억을 쌓을 수 있었고, 직업 체험을 통한 직업의 각종 특징과 재미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 # 이 곳에 오기 전에 늘 혼자서 먹었고, 먹기 싫은 날도 많았다. 그러나 이 곳에서 식사를 할 때 누군가와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 #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었다.
- # 주위 많은 분들에게 넘치는 관심과 도움을 받은 것. 내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 # 안나의 집에 도착함으로써 마침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이 곳에서 받은 안락한 잠자리, 맛있는 식사, 그리고 편안한 옷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 # 무심코 지나갈 수 있었던 것들을 깨달음으로써 앞으로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 # 저의 수학 과외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숙제를 안 해가도 포기를 안 하시고 언제나 잘 알려주시고 저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 # 키가 큰 것. 17살 이후로 한 번도 안 자랐는데 3년 만에 키가 1cm나 커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 # 멘토-멘티 데이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맛있는 것도 먹고 대화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 홍장원 신부님과 상담했을 때가 정말 좋았다. 우울하고 지친 나를 위로해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 # 쉼터에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고 그것들에 관하여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 # 입소 후 용돈을 받아서 평소 하고 싶던 여러 가지 취미 생활과 여가 생활 등을 즐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칭찬합니다” 1년간 가족회의 시간에 나누었던 칭찬 메시지 모음

- 01 매일 늦는 잔업에도 회사를 일찍 다니고 퇴근도 늦게 하지만 매일 밝은 자세로 쉼터 생활에 임하고 우리를 위해 간식거리도 가지고 오는 모습이 보기 좋아 칭찬합니다.
- 02 코골아도 잘 참으며 내색 안하고 평소에 나 때문에 잠 깨도 별 말 안하고 인사 먼저 해줬으므로 칭찬합니다.
- 03 매일 학교가 끝난 후에 피곤할 텐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학원과 독서실을 가서 공부하는게 대단한 것 같다.
- 04 시험기간에 캔 커피를 사주었다. 용돈도 부족한 상황임에도 커피를 사주었다.
- 05 같이 PS4를 해서 재밌게 철권을 하였다. 초보인 나에게 조작법을 가르쳐 주었다.
- 06 공연 연습 힘들었을 텐데 힘들다는 소리 없이 끝까지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끝까지 공연을 열심히 함.
- 07 내가 처음 헌혈하러 갈 때 친절하게 위치랑 이 곳 지리를 알려줬다. 어느 곳에서 친구들이랑 놀면 재밌는지 등 여가 생활을 알려주었다.
- 08 부딪혔는데도 별 말 없이 지나가주고 평소에 잘 챙겨준다. 고마워해야 되는 사람
- 09 갑작스럽게 아르바이트를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고 계속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이 칭찬하고 싶고 고맙다.
- 10 PS4가 작동이 안 돼서 못했는데, 그것을 고쳐줘서 작동하여 게임을 할 수가 있었다.
- 11 **이는 3년 동안 고생했는데 취직도 성공해서 일도 잘 다니고 열심히 산다.
- 12 온 지 얼마 안 된 나와 가장 잘 놀아주어서 정말 고맙다.
- 13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평소에 작게(이야기를 걸어주거나 편 들어주는 등) 배려를 해줌. 큰 무언가 보다는 작은 배려들이 고마웠음.
- 14 고등학교 때의 성실함을 그대로 유지하여 성인이 되어 취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열심히 다닌다.
- 15 고등학교 때의 성실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장생활도 열심히 한다.
- 16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물어봐 주는 모습에 고맙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어색할 텐데 그 어색함을 없애주었다.
- 17 나이도 어리지만 형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잘 생활하고 적응을 잘함. 템플스테이에서도 열심히 참여함



“칭찬합니다” 1년간 가족회의 시간에 나누었던 칭찬 메시지 모음

- 18 다이어트를 하려고 시도했다. 비록 실패했지만 도전하려는 모습이 멋있어서 칭찬합니다.
- 19 말을 붙여준 사람이다. 심심해 할 때 말을 걸어준 유일한 사람. 이상하거나 그렇게 보지 않는다.
- 20 얼마 들어온 지 며칠 안 되었지만 알아서 자기 할 일과 막내로서 도우는 모습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
- 21 일을 열심히 다니고 월급 돈이 들어오는 대로 잘 모음. 그리고 자기 관리를 꼼꼼하게 잘함
- 22 같은 직장인으로서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퇴근 후에도 밝게 인사를 해주는 것이 보기 좋다.
- 23 매주 쉼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형이나 동생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다.
- 24 별 일 없이도 말 걸기 편하다. 평소에 잘 놀아준다. 심심할 때 편하다.
- 25 아침에 매우 피곤하여 커피를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다. 그때 **이 형이 커피를 사줬다.
- 26 입소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항상 밝은 모습으로 다른 친구들의 장난이나 여러 가지를 잘 받아주는 하는 모습이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
- 27 빨래 정리가 안 될 때 알려주고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걸 알려준다.
- 28 방 정리에 관한 기본적인걸 알려주고 재미있게 같이 놀았다.
- 29 개인적인 사정으로 빨래 같은 것을 못할 때마다 부탁을 하면 좋게 좋게 항상 해주는 게 좋은 것 같다.
- 30 자신의 진로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고 성실하게 행동으로 옮김
- 31 과제와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고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마다 빌려 주었다.
- 32 자립을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개발을 위하여 악기 연습도 꾸준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 33 대화 상대가 되어준다. 모르는 것이 있어도 잘 알려준다. 편견 없이 나를 대해주는 것 같다.
- 34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마다 먼저 물어봐주고 빌려주었고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게 도와줬다.
- 35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맛있는 요리를 해주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다.
- 36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곤란해 할 때마다 항상 빌려주었고 힘들어서 쉬고 싶어 할 때 도와주었다.
- 37 항상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빌려주었고 힘든 일이 있어서 곤란해 하고 있을 때 마다 도움을 주었다.



“대학 합격수기”

노○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교 문예창작과에 합격한 중장기 작가 노○입니다. 합격수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렇다고 제가 누군가에게 괜찮은 대학이라고 자랑할 정도가 아닌데도 이런 후기를 쓴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글을 쓰는 것에 대해 관심이 생기면서 작가라는 진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표현하는 방법이 저한테는 더 편했습니다. 말로 할 때는 남들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놓칠 때도 있지만, 글의 경우에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알려 줄 수 있기 때문이었죠. 또한, 책을 읽을 때에는 책의 한 장면 안에 담겨진 그 속에 담겨진 이야기가 제 상상력을 통해 구현 되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작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학업부터 시작해서 비용문제 그리고 대인관계 등 정말로 수많은 장애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애물을 넘을 때마다 힘들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쉼터에서는 제 진로를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제 진로와 관련된 학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 선생님을 저에게 소개해주었고, 어떤 공부 가장 필요한지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쉼터의 도움 덕분에 내 눈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예창작과로 진학을 결심하고 입시 준비를 위해서 남들보다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때로는 다른 진로를 생각하기도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노력한 결과물이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작가라는 진로가 있기에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는 책뿐만 아니라 미디어에도 나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배울게 많고 부족하지만, 진로를 가질 수 있기에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진로로 인하여 고민하는 친구들도 꼭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인터뷰

Q.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공무원(9급) 전산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어떤 과정으로 진로를 결정했나요?

저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해서 IT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능반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한 분야의 일만 했습니다. 고졸 후 3년간 중소기업에서 IT 관련 업무를 하였고, 이후 군대에 입대해서도 전산병으로 2년간 복무를 한 후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했고, 지원하여 공무원이 되었어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서 법원 공무원 전산직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지원조건은?

4년제 학위, 관련 자격증, 수상실적, 근무경력 을 가지고 면접을 진행한 후 최종 합격 발표를 받았어요.

Q.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전산관련 공부를 꾸준히 하였고, IT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이 직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인생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계기?

어려웠던 가정환경으로 인해 내가 성공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열심히만 했습니다.

Q.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가족

Q. 나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람?

선생님들 / 많은 조언과 꾸지람. 격려와 조언을 해주셔서

Q. 인생에서 나의 침체기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수상하지 못했을 때, 지방경기에서 우수상으로 끝났을 때.

Q. 내 인생의 황금기는?

현재. 내가 바라던 직장을 얻게 되어서.

Q. 앞으로의 예상되는 어려움은?

조직 내에서의 적응을 잘 해야 하는 부분

Q. 미래의 계획?

정보관리 기술사 자격증 취득을 해서 이 분야의 최고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대학교 강의도 하고 싶고, 공무원 5급으로 승진도 하고 싶어요.

Q. 쉼터 후배들에게 한마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빨리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된다. IT계열로 취직하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Q. 쉼터에서 생활할 때 어땠나요?

거의 학교생활을 해서 쉼터에서는 잠만 잤는데, 공부하는데 있어서 환경조성을 잘 해주시고 배려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음에 어려움도 있지만, 홀로서기에 성공한 이**의 아름다운 도전은 계속될 것이며, 퇴소생들의 안정적인 자립정착을 위해 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전직원은 함께 노력 할 것입니다.

“터닝포인트”

손 석 훈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사회복지과가 저에게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았던 때, 3학년 1학기 학업을 진행하면서 실습기관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중 저에게는 청소년분야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라고 생각되어 청소년기관을 주로 검색했습니다. 그중에서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에 관심이 가 실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7월 중순 부터 8월초 까지 총17일 동안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에서 실습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진로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실습하기 전 쉼터에 대한 인식은 가출청소년들, 비행 청소년 등 사회로부터 소외된 아이들이 집이 없어 잠시 거주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습을 진행하면서 쉼터가 청소년시기에 가지고 있는 걱정들을 상담해줄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자립지원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쉼터아이들 중 저는 이○○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이○○을 보았을 때는 기본적인 생활이 다른 아이들 보다 떨어지고, 외부활동을 싫어하고, 말수가 별로 없는 소극적인 친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변화를 주고 싶은 욕구가 생겨 집중적으로 생활지도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지도를 해도 전혀 영향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는지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도하니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실습을 마치고 2개월 후 제가 업무보조 봉사로 쉼터에 방문했을 때, 이○○이 스스로 진로도 고민하고, 매일 봉사를 하여 외부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함과 보람된 느낌이 들었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에게 고마움도 느꼈습니다.

저는 실무적인 경험과 아이들로부터 배우는 점이 있어 실습을 마친 후에도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생각나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시고, 실습과 봉사를 통해 진로에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주신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직원 분들과 쉼터 아이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매달 셋째 화요일을 기다리며

강홍준 봉사자(위례성데레사성당 소속)

위례로 이사 온 덕분이다.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이하 쉼터)를 알게 된 것 말이다. 지난 2월 쉼터가 있는 건물을 방문했던 일이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 천주교 수원교구 위례성데레사성당 주임신부님인 박필범 야고보 신부님이 “쉼터에서 지원 요청 공문이 왔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도와드리세요”라고 말씀해주셨다. 안나의 집에서 운영하는 쉼터 개소식에 신부님이 가셨었고, 평소에도 이 곳에 대한 관심이 크셨다. 그래서 직접 가봤다.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오후 시간을 낸 것이다. 우리 성당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걸렸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이 있었다니...

지난 3월부터 성당 교우 5명이 팀을 이뤄 쉼터 퇴소생에게 반찬을 지원하는 ‘도담(도시락을 담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나이가 차거나 더 이상 쉼터에 있을 수 없어 나온 아이들을 위해 집 밥을 담아 전달하는 사업이 도담이다.

우리 성당 식구들은 매달 셋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면 8층 식당 주방에 모여 5~6가지 반찬을 조리했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걱정이 됐다. 집에서 고작해야 전기밥솥으로 밥을 하거나 라면 끓이는 정도였기에 주방 일에 도움이 되거나 할까, 같이 봉사하는 동료 자매님 4명께 폐나 끼치지나 않을까 등등. 그래서 처음엔 무거운 손을 드는 일, 가스 화로불 열기 주변에서 주걱과 국자를 들고 국이나 찌개를 끓이는 일을 주로 했다.

“막 저으면 깨져요!” 주방에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조리사님들이 이렇게 걱정하기도 했다. 한 여름철엔 화로 주변이 찜통인지라 이마엔 구슬땀이 맺히고, 속옷은 땀에 젖었다. 그런 상태에서 회사로 곧바로 출근하기도 했다.

한번은 쉼터의 직원님들과 함께 조리된 반찬이 전달되는 곳, 퇴소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직접 찾아갔다. 도시락 통에 담긴 반찬은 얼마나 도움이 될까 궁금했고, 알고 싶었다. 쉼터의 경차는 고불고불 성남 주택가 고갯길을 올랐다. 차 두 대 교행이 불가능한 좁은 길, 경차가 아니면 다니기 어려운 길이었다. 그렇게 해 아이들이 사는 지하방에 도착했다. 선생님들이 반찬을 전달하며,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었다. 그 덕분에 나도 아이들의 삶을 볼 수 있었다. 거친 세파에 부대끼며 살아가는 삶 말이다. 위례 신도시 아파트 숲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이들이 살고 있었다.

그 때 기억은 내내 잊히지 않았다. 누가 반찬을 기다리는지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락 통에 담긴 반찬

에 정성 한 손갈 더 보태려 매달 셋째 화요일을 기다렸고, 우린 함께 봉사했다.

지난 6월인가 도담 프로젝트 예산 지원이 중도에 끝나 더 이상 봉사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성당 신부님과 상임위원님들을 설득해 우리 성당이 이 프로젝트의 예산 지원을 하게 됐다. 2019년을 기억하는 큰 보람으로 여긴다. 이에 비해 아쉬운 점도 있다. 쉼터 주방에서 조리한 반찬이나 음식은 기껏해야 1주일 정도 아이들의 허기를 달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반찬이 좀 오래, 더 자주 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지속되었으면 한다. 그렇게 된다면 나의 주방 일 솜씨도 몰라보게 나아질 것이라 믿는다.

* 매달 셋째 주 도담 봉사를 하는 위례성데레사성당 봉사자들. 맨 오른쪽이 필자다.



심터 아이들과 음악으로 소통하고 음악적 정서를 서로 교류하던 시간.



강 사 명 : 송영훈 음악치료사
치료중재 : 음악치료
일 시 : 2019년 1월 ~ 6월
장 소 :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먼저 인턴 신분이었던 제게 음악으로 아이들과 만날 수 있게 허락해주신 기관 소장님 및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에서 음악치료를 전공하던 실습생 송영훈입니다. 아동,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실습을 하던 제게 우연한 기회로 성남시 중장기 쉼터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이해, 그들의 문화, 쉼터라는 명칭 등 낯설고 경험이 적어 시작에 앞서 불안감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음악아(Music Child), 음악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은 어떠한지 기대감도 컸습니다.

음악치료 세션은 오후 7시 30분.. 조금 늦은 시간이며, 첫 만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얼굴과 표정에서 순수함과 장난스러운 느낌을 보았습니다. 걱정과 달리 아이들 모두 음악을 좋아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음악 안에서 자유롭게 표현하였습니다. 회기가 진행될수록 아이들의 마음 한편에 음악치료는 자리를 잡았고, 놀라웠던 것은 부담감이 많았던 제 자신도 아이들과의 소통과 대화에서 자유로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악치료 시간에 아이들의 고민과 해결하지 못했던 이슈들을 음악치료 안에서 고백할 때마다 문제해결보다는 진심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노래로 공감해주고 악기연주를 통해 자신의 심리적인 부분을 털어낼 수 있게 도와줘 긍정적인 정서가 들도록 했습니다. 표현이 어려운 아이에게 좋아하는 노래나 자주 듣는 음악을 소재로 가사의 의미를 서로 이야기 나누며 현재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랫말에 본인이 직접 가사를 바꿔 노래 부르며, 음악 안에서 표현의 자유와 노래가 나의 어려움을 대신해주는 경험을 느끼도록 중재하였습니다.

세션이 진행되던 시간이 아이들의 퇴근 혹은 하루를 마치는 시간이라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살았는지, 오늘 하루에 대해서 피드백을 갖고 다음 날에는 조금 더 열심히 살거나 의미가 있도록 미래에 대한 계획, 앞으로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귀하고 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종결되면서 아쉬움도 컸지만, 아이들의 표현력과 치료사와의 긍정적인 관계, 타인을 믿는 신뢰, 상호교류 등 정말 많이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아이들뿐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쉼터 아이들에게도 많은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음악 안에서 자유롭게 진심으로 음악의 힘을 믿고 기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와 귀한 아이들과의 만남을 감사해주신 기관 담당자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

오정빈



안녕하세요 성남시 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에서 야간 생활지도를 한 오정빈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 면접 볼 때 이복형제들로 인해 폭언과 폭행 등으로 가정이 늘 불안했고 그런 아픔이 있었기에 그 누구보다 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감히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했던 말을 서슴없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은 아이들과 외부 프로그램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쉼터에서 금전적으로 많은 지원뿐만 아니라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값진 경험까지 시켜주니 얼마나 좋냐고 묻자 입소생 한명이 “대신 엄마가 없잖아요”라고 말하더군요. 순간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들 가장 필요하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 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으며 어린 시절 가정이 불안했고 힘든 상황들은 많았지만 어머니의 큰 희생과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았던 저로서는 그들을 감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지급되어지는 다양한 혜택에 대한 고마움을 아이들 스스로 알도록 가르쳐야하겠지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니즈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더 중요한 부분에서의 고민으로 다가 가야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넘게 10여명의 아이들과 지내다보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또한 인정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겠다! 이런 다짐이 얼마나 모래성처럼 가벼운지도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각오를 새겨 봅니다. 아이들의 마음과 상처를 내가 감히 이해할 수 없음에서 출발하여 최대한 여러 가지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알아가고 다가가겠노라고.. 그리하여 먼 훗날 서로가 “그땐 그랬지” 하면서 웃으면서 마주할 날을 기대하며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버텨보리라고...^^

♡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

1월	김윤자님 100,000 / 서울모금회 1,000,000 / 김종민님 20,000 / 김동환님 30,000
2월	김윤자님 100,000 / 한국청소년지원협의회 800,000 / 김동환님 30,000
3월	김윤자님 100,000 / 김덕순님 200,000 / 김동환님 30,000
4월	김윤자님 100,000 / 구**님 200,000 / 죽전동성당 200,000 / 안예지님 100,000
5월	김윤자님 100,000 / KT&G복지재단 100,000 / 죽전동성당 200,000 / 서울모금회 1,000,000 (사)선학회 1,000,000
6월	김윤자님 200,000 / 죽전동성당 200,000 / 김동환님 90,000
7월	김윤자님 200,000 / 손석훈님 100,000 / 죽전동성당 200,000 / 우체국 공보협 400,000 김동환님 30,000
8월	김윤자님 200,000 / 죽전동성당 200,000 / 김동환님 30,000
9월	김윤자님 200,000 / 죽전동성당 200,000 / 김동환님 30,000
10월	김윤자님 200,000 / 죽전동성당 200,000 / 이동현님 100,000 / 김동환님 30,000
11월	김윤자님 200,000 / 이동현님 460,000 / 박기자님 500,000 / 죽전동성당 200,000 김동환님 30,000
12월	김윤자님 200,000 / 엄아네스님 50,000 / 이동현님 100,000 / 죽전동성당 200,000 한국지역난방노동조합 500,000 / 성남지역연합법사랑위원회 600,000 / 김동환님 30,000 이**님 200,000

♡ 물품을 후원해 주신 분들

1월	한국과학창의재단(과학도서 22권) / 이매동성당(주, 부식 1박스) / 성남시 교육청소년과(화장지, 스펀, 참치 2박스) / 위례동주민센터(화장지, 세제, 참치세트 2박스) / 최종우님(음료 1상자)
2월	강현우님(음료 1박스) / 이매동성당(주부식 1박스)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롯데월드 티켓 10매) 위례동 성당(음료 6병) / 죽전동성당(주부식 1박스)
3월	조성자율리아님(계란 8판)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바디로션, 바디워시 1박스) / 위례동성당(음료 6병) / 이매동성당(주부식 1박스) / 홍장원님(케이크 1상자)
4월	위례동성당(음료 6병) / 구**님(도너스 1상자, 음료 2상자, 딸기외 1박스, 과일 1박스) / 스마트학생복 (복정고 하복 상하 1세트) / 죽전동성당(주부식 및 간식 1박스) / 이매동성당(주부식 및 간식 1박스)
5월	남명식님(간식 5상자) / 따뜻한세상만들기(문화상품권 9장) / 구**님(참외 10개) / 성남학원연합회 (메가팩스 수강권 1장) / 구**님(참외, 바나나) / 이매동성당(주부식 및 간식 1박스) / 용인불보센터 (햄버거 11개)

♡ 물품을 후원해 주신 분들

6월	위례동성당(음료 6병) / 이상휘님(음료 2상자)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식사권 5매) / 이매동성당(주부식 및 간식 1박스) / 삼성웰스토리(쌀10kg 34포) / 홍장원님(과일, 카스테라 1박스)
7월	성남시자원봉사센터(짜장라면외 2박스) / 최종우님(음료 1상자) / 장안대학교(공기청정기 1대) / 위례동성당(음료 6병) / 오현숙님(소파 1개)
8월	손석훈님(피자 6판) / 죽전동성당(주부식 1박스) / 이**님(음료, 과일 1상자) / 이매동성당(주부식 1박스) / 남명식님(간식 2상자) / 구**님(아이스크림 30개, 멜론 1상자) / 위례동성당(음료 8개) / 김정숙님(감자, 옥수수 2박스) / 성남시자원봉사센터(컵라면외 6박스)
9월	죽전동성당(주부식 1박스) / 성남시 교육청소년과(세제 3박스) / 위례동행정복지타운(세제, 화장지 3박스) / 중원구 건설과(세제, 화장지 2박스) / 신의현님(아이스크림 2통) / 김수빈님(전기밥솥 1대) / 위례동성당(음료 5병) / 이매동성당(주부식 1박스) / 이재성님(음료 1상자)
10월	죽전동성당(주부식 1박스) / 구리중장기쉼터(음료 1상자) / 위례동성당(음료 6병) / 이매동성당(주부식 1박스) / 강세정님(도서 5권) / 느티나무 도서관(도서 100권)
11월	서초동성당(과일, 아이스크림 4개) / 스마트교복(위례중앙중 교복 1세트) / 상담복지센터(위례중앙중 교복 1세트) / 성남시청(비니 10개) / 이매동성당(주부식 1박스) / 중부제일교회(과일 1박스) / 송인령님(쌀 3포) / 위례동성당(음료 6개)
12월	홍인정님(아이스크림 2상자) / 김명옥아네스님(고춧가루 1봉) / 정혜자님(참깨 1봉) / 위례동성당(음료 6병) / 성남시청(쌀10kg 7포) / 이**님(음료 1상자) / 구**님(음료 1상자) / 이매동성당(주부식 1박스) / 홍장원님(쿠키 1상자) / 카페미르 정현영님(차약, 칫솔, 케이크 1박스) / 이상휘님(음료 2상자) / 김호정님(치킨, 피자 7상자)

♡ 봉사자님 소개

학습봉사자(수학-신의현님, 박성영님 / 영어-홍장원님 / 학원지원-분당대치우리학원) / **시설 유지보수**-이경규님 / **프로그램 지원**-그린나래 진로직업협회(김호정님, 김경선님, 이보경님, 배소영님), 용문사 템플스테이(진각스님) / **세탁지원**-‘평화사’ (박지희님) / **행정봉사**-손석훈님, 김민지님, 박한빛님 / **식사봉사**-이매동성당 빈첸시오회, 평내동성당, 위례동성당, 죽전동성당, 코이노니아, 광주성당(노영희님), 보정성당(윤희남님) / **음악치료**-가천대 음악치료대학원(송영훈님, 김진수님) / **멘토링프로그램**-서초동성당(청년부 레지오) / **진로상담**-유봉영님

한 해 동안 아낌없는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

성남시남자청소년쉼터(단기,중장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체육, 미술 등 예체능 활동의 재능나눔, 공부를 지속하기 위한 학습지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 기타 행정보조 및 노력봉사를 해주실 봉사자 선생님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일반후원

쉼터를 위해 정성을 담아 보내주신 후원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청소년들에게 소중히 사용될 것입니다.

물품후원

먹거리, 피복, 문구 등 각종 생필품들이 쉼터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합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120-4514-21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농협 301-0121-1372-01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12
우남이타워프라자 8층

☎ 031-752-9050

☎ 031-758-9050

🏠 www.bestboy.co.kr

✉ jnshimter@hanmail.net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12
우남이타워프라자 8층

☎ 031-722-6260,6239 ☎ 031-756-6239

🏠 www.purumi.net

✉ purumi2006@naver.com

🗣 카카오톡 ID.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

📘 페이스북. 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 인스타그램. sn_youthshelter

오시는길



지하철 복정역 2번 출구 하차



버 스 위례서일로 마을 입구 정류장 하차
(331, 50-1, 50, 452, 3012)



위례서일로마을입구 정류장에서 300m 거리에 위치